지식경제부 Ministry of Knowledge Economy **보도참고자료** http//www.mke.go.kr

자료문의 : 아주협력과장 제경희(2110-5371),
통상협력정책과 신지현 사무관(2110-5369)
유전개발과장 전민영(2110-5530), 이혜영 주무관(2110-5438)

# 박영준 지경부 차관, 베트남의 희토류 등 자원 확보 및 석탄화력발전 수주 지원

## – 한–베트남 자원협력위, 한–베트남 구매상담회, 투자상담회 개최 –

□ 박영준 지식경제부 차관은 12.20-21일 양일간 베트남 하노이를 방문하여, **한-베트남 자원협력위, 구매상담회, 투자상담회**를 개최하는 한편,

○ 황 쭝 하이 **부총리**, 부 후이 후앙 **산업무역부장관**, 딘 라 탕 **베트남 석유공사 사장**, 트란 쑤안 호아 **베트남 광물공사 사장** 등 베트남 정부 고위급인사 및 유관기관 대표와 차례로 만나, **양국간 자원 분야 현안 및 우리기업 플랜트 수주지원**을 당부함

□ 12.20일 박 차관과 베트남 산업무역부 레 융 꾸앙 차관을 수석대표로 개최된 제7차 한-베트남 자원협력위에서는 석유·가스 개발 및 광물 분야 협력 등에 관한 양국간 실질적인 협력 MOU 5건을 체결하고, 향후 양국간의 에너지·자원분야 협력 확대를 논의함

### ① 베트남과의 광물자원 분야 협력 확대

○ 우선, 베트남의 **유망한 희토류 광구 확보**를 위하여 잠재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진 **베트남 북부 네안지역의 희토류 광상을 조사**하고 이에 대한 **공동 탐사 및 개발방안을 추진**하기로 함

- 이를 위하여 한국의 지질자원연구원(원장 : 장호완)은 베트남 지질자원연구소와 양기관간 ROA(Research of Agreement)를 체결함

○ 또한 한국 컨소시움(한국광해관리공단, 경동, (주)태광파워홀딩스)은 **베트남 바오다이 지역의 석탄광개발(매장량 : 무역탄 15억톤) 사업을 본격 추진**하게 됨

- 3사는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베트남 석탄광 개발 프로젝트 등을 추진 중에 있으며 베트남 석탄광물공사(VINACOMIN)와 공동으로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기본 합의서(Head of Agreement)를 체결하고 개발대상구역을 확정, 11년부터 본계약 체결을 추진하기로 함

## ② (주)태광파워홀딩스, 베트남 남딘 석탄화력발전소 사업 본격 추진

○ (주)태광파워 홀딩스(회장 : 김기재)는 2400MW(600MWX4기), 45억불 규모의 **베트남 남딘 석탄화력발전소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계기를 마련**함

○ 금년 3월 (주)태광파워 홀딩스는 산업무역부와 동사업에 대한 MOU를 체결한바 있으며 **이번 자원협력위에서는 사업의 Framework를 정하는 주요조건 합의서(PA)*를 체결**함으로써 본격적인 프로젝트 추진에 들어감

* PA(Principles of Project Agreement)는 **정부보증 범위·원칙, 사업 후 양도기준, 개별 주요계약의 민감사안**을 **정부와 사전 합의**함으로써 사업추진시 혼란과 소요기간을 최소화하는 **베트남 특유의 사전절차**

○ 태광파워홀딩스는 '11년말 모든 계약을 완료하고 12년말 건설공사를 시작, **16년도에 1단계 발전소 상업운전을 시작하는것을 목표**로 하고 있음

- 동사업은 25년간 BOT(Built Operate Transfer)방식으로 추진되어 동기간간 전력판매액은 250억달러로 예상되는 한편, 국내 주도의 발전소 건설과 준공 후 발전소 운영을 위한 인력 송출, 지속적인 정비자재 수출, 전기판매 수익을 가져다 줄 것으로 전망됨

## ③ 석유공사와 베트남 석유공사간 제3국 공동 진출 협력

○ 석유공사는 베트남 최대 기업인 Petrovietnam*과 **베트남 및 제3국에서 신규사업을 공동으로 추진**하기로 함

* Petrovietnam(베트남 석유가스공사) : '09년 매출액 160억달러, 베트남 GDP 17% '10년 매출액 250억달러, GDP 20% 예상

- 양사간 MOU를 체결하고 관심사업에 대한 공동 참여 및 투자를 확대해나가기로 합의하여 양사간 시너지 효과 창출이 기대됨

④ **알루미늄 제련공장 설립 협력**

○ 동양강철은 베트남 석탄광물공사(VINACOMIN)와 **베트남 현지 알루미늄 제련공장 설립(4천억원)을 추진**키로 함. 동양강철은 향후 동 공장에서 생산된 알루미늄 원자재를 한국으로 공급할 계획임

* 베트남은 알루미늄 원료인 보크사이트 매장량 세계 4위 국가, VINACOMIN은 보크사이트 광산 및 연간 1.3백만톤의 알루미나 생산량을 보유

* 한국은 **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**하고 있으나 **알루미늄 원자재 전량(연간 2.5백만톤)을 수입**하고 있는 실정임

○ 향후 **동양강철은 현재 국내소비량(2.5백만톤)의 1/4에 해당하는 알루미나 60만톤에 대한 독점적 권한을 확보**하게 됨에 따라, 동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국내 알루미늄 원자재 수급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

□ 박영준 차관은 황 쭝 하이 **부총리**, 부 후이 후앙 **산업무역부장관**, 딘 라 탕 **베트남 국영석유회사 회장** 등과 만나 양국간 **균형적 무역확대**, 베트남 진출 **우리기업의 애로해소, 화력발전소 건설** 등에 **우리기업 참여 확대, 석유·가스, 광물 등 양국간 협력** 등에 대해 **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화**를 나누었음

○ 양국은 금년 양국간 **무역규모 120억불 달성**이 **한국의 자본과 기술, 베트남의 우수한 노동력**이 결합하여 **시너지를 극대화한 결과**라고 평가하고, 금번 **대규모 구매사절단의 파견**이 양국간 **무역의 균형적인 확대**에 기여할 것임에 의견을 같이함

○ 또한 양국은 **한국이 베트남 최대의 투자국**으로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기업이 겪는 **기술인력 부족, 통관 애로, 지방정부의 투자환경 개선, 법령 미비** 등 애로사항에 대한 인식을 같이하고,

- **직업훈련소 건립, 전자통관 시스템관련 협력** 등 해결방안을 공동 모색키로 함

○ 박차관은 **풍부한 해외경험과 기술력을 갖춘 한국 플랜트 산업**의 우수성을 적극 홍보하고,

- **응이손 Ⅱ 발전소 건설, 하이퐁 전력 배전자동화 사업,** Project Agreement를 체결한 **남딘 석탄화력발전소** 등 한국기업이 참여(혹은 희망)한 프로젝트에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함

○ 특히, 박차관은 **보오크사이트 세계 매장 4위**인 베트남에 한국이 **알루미늄 일관 생산체제**를 구축함으로써 **고용창출, 수입대체**를 통한 적자 완화 등 **다각적인 이익창출이 가능**함을 강조하고, 베트남의 협력파트너로 한국기업(동양강철)에 대한 배려를 적극 요청함

- 베트남의 만성적인 전력부족 상황 및 예상 전력 수요 급증에 대비하여 **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한국의 전력산업**이 조력할 수 있음을 강조함

○ 현재 활발히 진행중인 양국간 석유·가스 분야 성과가 **제3국 자원 공동개발**에서도 지속될 수 있도록 지원을 요청하는 한편, 11-2 가스에 대한 추가투자가 원활할 수 있도록 **가스가격 인상**을 요청함

○ 양국은 **희토류 광상 공동 조사, 친환경 광산개발, 원전 협력, 표준분야 협력**에 대해서도 협력하기로 합의함

□ 한편, **24개 한국기업(32명)으로 구성된 구매사절단**은 20일 오후 **80여개 베트남기업**을 대상으로 한-베트남 구매상담회를 개최(박영준 차관 현장 방문 및 참석기업 격려)하였으며,

○ 21일 오전에는 양국기업 50여개(14개 한국 기업 및 기관)가 참여한 가운데 한-베트남 투자상담회(박영준 차관 현장 방문 및 참석기업 격려)가 개최될 예정임

□ 박차관은 12.21일 **베트남 현지 진출 한국 대표기업(30여개 기업)**들과도 만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정부간 공식·비공식 채널을 통해 이들 애로사항의 해결에 대해 노력을 해 나갈 것임을 약속할 계획임

□ 금번 박차관의 베트남 방문은 부총리 등 최고위급 정부관계자 연쇄 접촉을 통해 자원에너지협력, 플랜트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베트남의 **최적파트너**로서 **'한국'을 적극 세일즈**하여,

○ **베트남 정부의 한국과의 강력한 협력의지**를 확인하고, 한-베트남간

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

□ 특히, 에너지, 자원분야의 양국 유관기관간의 MOU를 통해 **향후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는 토대를 마련**하였으며,

○ 베트남의 최대 현안인 **무역적자, 전력부족, 인력양성, 표준정립** 등 분야에서 **구체적인 협력방안을 제시**함으로써, 빠른 시일내에 **실질적인 협력이 전개**될 것으로 기대

□ 또한 이번 방문은 **구매상담회, 투자상담회** 등을 동시에 추진하여, 양국간 **산업 전반에 걸쳐 균형적인 협력확대** 및 **상호 Win-Win 하는 협력모델** 정립에 기여했다고 평가

## 참고1 베트남 무역·투자 현황

□ '92년 한·베트남 국교수립 이래 **양국간 교역규모는 20배 이상 성장**하여 '10.9월 현재 베트남은 **아세안 제4위 교역 대상국**

* 아세안 교역규모 순위(억불): ①싱가포르(168.6), ②인니(168.2), ③말련(116.3), ④**베(99.6)**

○ '10.9월 한국의 **對베 수출액은 67.7억불**(전년대비 35.6% 증가), **수입액은 21.9억불**(전년대비 28.8% 증가)으로, **총 교역액은 89.6억불을 기록**

**< 한-베트남 연도별 교역 현황 >**

(단위 : 억불, 전년동기대비 %)

| 구 분 | | '04 | '05 | '06 | '07 | '08 | '09 | '10.9월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수 출 | 금액 | 32.6 | 34.3 | 39.3 | 57.6 | 78.0 | 71.5 | 67.7 |
| | 증가율 | 27.1 | 5.4 | 14.5 | 46.7 | 35.5 | -8.4 | 35.6 |
| 수 입 | 금액 | 6.7 | 6.9 | 9.3 | 13.9 | 20.4 | 23.7 | 21.9 |
| | 증가율 | 31.8 | 3.1 | 33.3 | 50.5 | 46.4 | 16.3 | 28.8 |
| 무역수지 | | 25.8 | 27.4 | 30.0 | 43.7 | 57.7 | 47.8 | 51.1 |

□ 한국의 **對베트남 수출 품목**은 **석유제품, 철강판, 합성수지** 위주, **수입 품목**은 **의류·신발 및 에너지 자원 중심**

○ '10.1~9월간 수출은 **석유제품, 철강판, 합성수지, 편직물, 무선통신기기 등 5대 품목이 對베트남 수출의 40.6%** 차지

○ 동 기간 5대 수입 품목은 **원유, 의류, 석탄, 천연섬유사, 신발**이며, **對베트남 수입의 40.9% 차**지

**< 한-베트남 품목별 교역현황 >**

(단위 : 백만불, 전년동기대비%)

| 순위 | 수출('10.1-9 ) | | | 수입('10.1-9월) | |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| 품목명 | 금액 | 증가율 | 품목명 | 금액 | 증가율 |
| 1 | 석유제품 | 696 | 41.6 | 원유 | 301 | -9.8 |
| 2 | 철강판 | 622 | 77.4 | 의류 | 227 | 57.5 |
| 3 | 합성수지 | 491 | 37.5 | 석탄 | 139 | 44.7 |
| 4 | 편직물 | 475 | 14.2 | 천연섬유사 | 117 | 73.8 |
| 5 | 무선통신기기 | 469 | 187.6 | 신발 | 112 | 24.8 |
| | **수출총계** | 6,772 | | **수입총계** | 2,193 | |

□ 한국의 對베트남 투자는 지속 확대되어 **현재 2,500여개의 한국기업이 베트남에 진출**하였으며, **한국은 베트남 내에서 제1위 투자국**

* 對베 투자순위('10.7월 누계 신고기준, 베트남측 통계) : ①(한국) 2,570건, 229억불 ②(대만)2,130건, 225억불 ③(일본)1,244건, 195억불, ④(말련) 362건, 180억불

○ **베트남은** 중국, 미국, 홍콩에 이어 **한국의 제4위 투자대상국***임과 동시에 **아세안 최대 투자대상국**으로 10.9월 현재 **총 123억불 투자**

* 한국의 투자순위('10.9월 누계 신고기준, 수은 통계) : ①(중국) 43,292건, 443억불, ②(미국) 20,014건, 397억불, ③(홍콩) 3,566건, 131억불 ④(베트남) 5,581건, 125억불

□ 기존에는 저임금을 활요한 노동집약재 산업 진출이 활발하였으나 **최근 자본재산업, 광업, 부동산업 등으로 투자 분야 다변화**

○ 對베 5대 투자분야는 **제조업**(52.2억불), **광업**(27.5불), **부동산업·임대업**(22.5억불), **건설업**(8.7억불), **금융·보험업**(4.1억불) 순('10.9월 누계, 신고기준)

* 주요투자기업 : LG전자, 현대중공업, SK에너지, GS건설, 한국전력공사, 포스코, 삼성물산, 한화 등

□ 한편 **베트남의 對韓 투자는 총 62건, 총 4.7백만불**(10.9월 누계, 신고기준)로서 **건수나 금액면에서 미미한 수준**임

○ 베트남의 對한국 투자는 '05년 1.1백만불 기록을 정점으로 감소세에 있다가 '09년에 투자가 증가하여 1.0백만불 기록

* **투자추이**: ('05)1.1→('06)0.4→('07)0.5→('08)0.4→('09)1.0→('10.9)0.5 (단위:백만불)

**< 한·베트남 연도별 투자 현황(신고기준) >**

(단위 : 백만불, 건)

| 구 분 | | '04 | '05 | '06 | '07 | '08 | '09 | '10.9월 | 누계*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對베 투자 | 금액 | 359 | 404 | 1,812 | 2,708 | 2,015 | 851 | 1,558 | 12,465 |
| | 건수 | 283 | 439 | 630 | 925 | 867 | 686 | 436 | 5,084 |
| 對韓 투자 | 금액 | 0.05 | 1.1 | 0.4 | 0.5 | 0.4 | 1.0 | 0.5 | 4.7 |
| | 건수 | 1 | 3 | 5 | 7 | 9 | 13 | 9 | 62 |

* 누계 : 對韓 투자 ('62년－'10.9월), 對베트남 투자 ('68년－'10.9월)

## 참고2 베트남 개황

| | |
|---|---|
| 국 명 | ○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<br>(The Socialist Republic of Vietnam) |
| 수 도 | ○ 하노이 |
| 면적, 인구 | ○ 면적 : 약 329,314㎢(한반도의 약 1.5배)<br>○ 인구 : 86.16백만 |
| 인종, 언어, 종교 | ○ 인종 : 비엣족(낑족, 전인구의 89%), 타이족, 화교, 크메르족 등 53개 민족<br>○ 언어 : 베트남어<br>○ 종교 : 불교(80%), 가톨릭(10%), 카오다이교(유불·도교의 혼합종교) 등 |
| 정치현황 | ○ 정부형태 : 국가주석제(대통령제)<br>○ 주 석 : 응우옌민치엔(Mr. Nguyen Minh Triet)<br>○ 총 리 : 응웬 떤 중(Nguyen Tan Dung) |
| 경제현황 | ○ 경상GDP : 914억불('09)<br>○ 1인당 GDP : US $1,080('09)<br>○ 실질GDP성장률 : 5.32%('09)<br>○ 물가상승률 : 6.88%('09)<br>○ 교역 : 1,270억불('09)<br>– 수출 : 571억불( 원유, 섬유 및 직물 제품, 신발류, 수산물, 쌀,)<br>– 수입 : 699억불(기계/플랜트 부품, 석유 제품, 철강제품, 의류, 전자제품 및 컴퓨터, 자동차)<br>○ 환율 : 19,480동(VND)/US$('10.9) |
| 한·베 관계 | ○ 수교일자 : '92.12.22<br>○ 수교이후 : 한-아세안 상품 FTA('07.6), 서비스 FTA('07.11), 투자 FTA('09.6) 등 협정 체결<br>○ 교역('09) : 95억불(수출: 71, 수입: 24억불)<br>○ 교민('10.9) : 85,000여명<br>– 주한 베트남인 : 93,000여명(근로자 53,000명 /결혼이주자 34,000명)<br>○ 인적교류('09)<br>– 베트남 방문 한국인 : 약 36만명<br>– 한국 방문 베트남인 : 약 7만 6천명 |

